

뉴스 & 뉴스

9월7일 조계종 행자교육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하는 제15기 행자교육원이 9월 7일 통도사 취운암에서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지금까지 남행자 154명, 여행자 135명 등 총 289명이 입학신청을 마쳤다. 이은자 기자

불국도한의원 순회진료

사회복지법인 불국도(대표이사 정관)한의학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농촌지역 순회진료에 나서기로 하고 16일 밀양시 삼랑진읍 행촌리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제1차 무료진료를 실시. 14일분의 약을 지급했다. 불국도한의학원은 노인, 실직자 및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051)758-8167 김재경 기자

승가원 그룹홈 등 '여름캠프'

승가원(이사장 지하) 산하 4개 그룹홈 및 주간보호센터 녹아원은 각각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4개 그룹홈 가족 41명은 7월29~8월1일 3박4일간 강원도 동해시 망상수유장에서 캠프를 열었다. 녹아원은 장애아동과 직원 등 29명이 8월 5~6일 강화도로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여름캠프는 장애인들에게 야외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용기와 자존감에서의 활기찬 휴식을 선사했다는 것이 동행한 자원봉사자들의 평가다. 김재경 기자

공원공단 김원동 구조조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12일 공단 인력의 4분의 1을 감축하는 한편 매년 정부가 지원해 온 운영자금 50억여원을 내년부터 중단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월15일까지 공단 본부와 23개 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력인력의 퇴출 및 자연환경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임연태 기자



◇정마침에 노숙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소문공원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아랑이네 가족. 절박한 심정에서 사진촬영에 어렵게 협조했다. '아침을 여는집'은 매주 10kg의 쌀을 서소문공원의 두 가족에게 각각 지원해 왔으나, 노숙자 무료 급식에도 쌀이 모자라는 지경이라 불자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교계 노숙자 시설들 여름위생관리 '골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흩어져있는 노숙자들은 모두 4천여명.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이들은 요즘 세면과 목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핵·전염병 등의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노숙으로 인한 갖가지 질병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수해까지 겹쳐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정부와 시민들의 지원이 시급하다. 김재경 기자

불교계는 현재 급식소나 숙소 등 노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같은 접근이 부족한 것은 몇군데에 불과하다. 현재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교계 단체는 길음복지관과 '자비의 손'(불가침구학회) 등 몇몇 침술봉사단체들뿐. 수해 등으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 여름, 불자들의 인력으로 노숙자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창립

회장에 양장운씨

21세기를 앞두고 한국불교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국제포교사회가 창립했다. (관련기사 4면) 국제포교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해외포교 △외국인포교 △해외 불교교단 및 단체와 교류 △한국 불교 국제화 △국제포교 현황을 수렴한 회차발안사업등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내실화를 이룬 뒤 해외포교에 전진하는 국제포교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포교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해외포교 △외국인포교 △해외 불교교단 및 단체와 교류 △한국 불교 국제화 △국제포교 현황을 수렴한 회차발안사업등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복지시설도 '님비' 몸살

포항 정애원·경주 불광원 등 주민반대로 착공못해

'혐오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안돼.'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고도소 등 혐오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불교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난승)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양로원(가칭) '정애원'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이사장 성타)이 추진중인 불교종합사회복지관 '불광원'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열린가람은 지난 4월25일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정애원 건축허가를 받고 6월18일 포항시 북구청 청계리 산 117-3번지

말대 1만여평의 대지에 건립 3백67평 규모의 양로원 건립을 위한 기초토목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청계리 주민들이 트럭을 동원, 공사를 방해해 공사가 연기된 상태다.

주민들은 정애원을 복지시설이 아닌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정애원이 들어설 경우 오페수와 쓰레기로 인해 청계리의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등 각종 공해가 심각해진다라는 점 등을 들어 양로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가람 대표이사 난승씨는 "무의탁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한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던 일이다"

면서 "관할구청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공사를 대화로써 추진할 것을 중용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중순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도 지난 4월13일 경주 원효사에서 기공식을 갖기로 한 '불광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불교사회연구원은 노인·아동 복지시설과 출소자 생활관을 겸한 불교종합사회복지관 불사가 주민들의 오히려 난항을 겪자 복지관 건립불사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의 복지불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부딪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8일 실직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보현의 집'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개원하지 못하고 한달 뒤에 서계동으로 장소를 옮겨 문을 열었다. 이유는 '부랑자 수용시설이 아니다. 땅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주민들의 오해와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승가원 부설 소책마을(원장 보각)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송한리 일대 부지 19만평 중 4만여평의 부지에 추진하려던 종합복지타운 건설도 올해 2월 어렵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금선사 공원내 경내지 불하

교계 첫 1천1백평

국립공원에 사찰 경내지도 불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구동 북한산 공원내 금선사(주지 법안)가 6월 10일 경내지 1천1백여평을 불하 받고 7월 27일 등기절차를 거쳐 불하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그

동안 국립공원에 전통사찰은 자연공원법 53조(처분제한)에 묶여 불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금선사 불하를 계기로 국립공원에 사찰들의 경내지 불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선사는 95년부터 불하를 추진, 95년 12월 전통사찰 등록후 1천1백여평을 경내지로 확정했으며 96년에는 임야였던 것으로 종교용으로 지목변경하는 등 1년9개월여만에 불하를 받게 됐다.

법안님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수십만평과 일반 전통사찰 경내지의 불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근 기자 (gamja@buddhopia.com)

불교유물에 아직도 일제 흔적

구미 쌍룡사에 쇠말뚝 남산석불 총독부 유적

공복 53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일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위치한 쌍룡사(주지 석불)에서는 경내 법당과 연결된 쌍룡바위 밑에서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박아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쇠말뚝이 발견됐다. 지름 1.8cm, 길이 1m 정도의 쇠말뚝은 6월 석불스님이 동굴입구의 흙을 제거하고 내부를 관찰하다 발견한 것이다. 쇠말뚝을 감정한 결과 일제시대 것으로 확인돼 구미시는 14일 쇠말뚝을 제거했다. 한편 경주의

불교유물에도 일제시대의 흔적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 금오산 남쪽에 위치한 보물 제187호 석불좌상 옆에도 가로 80cm, 세로 1.2m 크기의 화강암에 '대정 11년(1922) 이 불상이 도난된 후 대정 13년에 복원됐다'는 내용과 조선통독부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다. 경주시 박물관에 위치한 사적 제8호 사천왕사지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도 일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화이다.

경주시청 문화과 서용봉과장은 "일제 때 철도건설로 훼손된 유적지는 화천리 고수철도 역사가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자연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해수관음상 수중봉안 승가대, 강릉 앞바다에

남북통일과 국난극복, 영가천도를 위한 해수관음 수중봉안식 및 수륙대재 '삼천불자사원 동해비나리'가 9월 18일 오후 1시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해변에서 열린다.

중앙승가대학교 해수관음 수중봉안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도후·현해·지하)는 강릉시 인현동 853번지 경포해수욕장 내 오리바위 인근 4m의 수중 8m에 높이 3m 규모의 해수관세음보살입상을 봉안키로 하고 8월초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 강릉시 등 관련 부처에 공문수면 점유허가과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opia.com)

사찰종합보험

사찰의 화재나 안전사고, 문화재 도난 등 재난을 대비한 보험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부화재(대표 송인기)가 신상품 '사찰종합보험'을 개발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사찰종합보험은 화재, 배상책임, 상해, 도난 등 네가지 담보를 통합한 상품으로 도난에 대한 가입은 선택사항이다.

화재 담보는 건물 탕화 불상등의 화재는 물론 경내의 수목에 대한 화재와 풍수해에 의한 파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상책임은 사찰 시설에 기인한 탐방객 배상의 경우는 물론 주차장 시설에

동부화재서 개발 성모등도 가입가능

기인한 배상과 사찰이 제공한 음식물에 기인한 배상 책임도 가능하다.

상해담보는 스님들의 일반상해나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상해 등 선택의 범위가 넓다. 무엇보다 사찰내의 동산을 비롯, 불상 문화재 귀중품, 현금등의 파손과 도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사찰종합보험은 가입 범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기존의 화재보험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목탁 소리

김정은 <취재2부 기자>

말에 두 사람은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만 하기 천만다행"이라며 위로를 했다. 그리고 다시 몇 마디의 말이 오가고 난 뒤, 그제서야 "스님이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렇다"는 스님의 말에 조금은 멧쩍은 웃음으로 "플라워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보광사의 피해경도와 다른

스님을 위한 '아멘'

스님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스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다"고 물었다. 스님의 흔쾌한 허락에 두 사람은 스님을 사이에 두고 스님의 쾌차와 보광사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 후 병실을 나갔다. 참으로 감동스러웠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물사건과 종교편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개신교 전도사가 스님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모습. 바로 종교화합의 작은 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적극적인 호스피스 활동과 불교계의 현실이 저절로 대비 되었다.

얼마전 불자로 알려졌던 배우 손창호씨가 투병중에 기독교의 기도원에서 눈을 감았다는 보도는 씁쓰레 했다. 한때 불교방송에서 '백광가요'를 진행한 그는 "스님이 되겠다"고 밝힌 후 정도를 신심깊은 배우였는데 갈 곳없는 한 몸 의지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기도원에 의탁했으니 교계의 무관심이 안타깝기만 했다. (jekim@buddhopia.com)

Advertisement for 'Xiang Ni' (香妃) health supplemen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oman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 particularly for women's health and vitality. The text mentions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Causes and Remedies for Women's Concerns) and lists various symptoms it treats.

Advertisement for 'Il-Sim-Sik-Jae' (일·심·석·재) stone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stone products and text describing the company's expertise in stone work and its commitment to quality. The text mentions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With 28 years of experience in making various stone products and international functional Olympic medalist experience).